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대학교의 위치는 다운타운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있어서 학교를 통학할 때는 불편함이 없었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교정이 크고 시설이 좋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워낙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이다 보니 차별이나 좋지않은 시선은 단 한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며 전형적인 외국 대학교의 느낌이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내용은 전반적으로 캐나다에 관련한 내용들이었으며 초반에는 다양한 체험학습들과 모둠 활동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 이야기할 기회도 주어져 재밌는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나 심오하게 들어가면 조금 더 집중을 요구하는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과제는 정말 없었고 충분히 수업시간에 끝낼 수 있는 과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외국인 교수님한테 수업 듣는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일단 학교를 다니면서 이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게 학교나 다운타운이 아랫쪽 밴쿠버에 위치해있는데 혼자서 가기 어려운 노스 밴쿠버 등이나 혼자서 찾아서 가기 쉽지않은 박물관 등을 친구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게 되면 짤 수 없는 활동적인 액티비티(카약)들을 경험하면서 수업을 하다가 따분했었던 시간들을 activity로 해소할 수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저는 완전 여름 날씨는 생각하고 반팔만 챙겨갔었는데 일단 일교차가 심하다는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하고, 학교가 은근히 추워요. 얇은 반팔이나 바람막이 잠바 하나정도는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햇빛이 쨍쨍비치는 오후가 덥습니다 습하지 않으니까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학교에서도 말하다시피 다운타운, 즉 학생들이 많이 놀러가는 스팟중에서도 일부 거리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리들이 있으니까 미리 염두해두거나 선생님들께 미리 여쭙봐서 그 부분에서 버스를 타거나 노는 것은 피하셨으면 좋겠고, 일찍 놀아서 빠르게 귀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홈스테이가 혼자 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혼자할 때 이 부분이 편하더라고요.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일단 홈스테이 시설에는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나 가족들의 성향이 각자 다른 것을 염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홈스테이 가족분들은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중요시한다기보다는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않고 용건만 간단히 끝내는 가족분들이셔서 홈스테이 가족분들과 보내는 시간이 없었기에 애초에 처음 들어왔을때부터 그 기대를 안하고 홈스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제한없이 마음껏 캐나다를 즐기고오기에 충분했던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가실 때 홈스테이에대한 로망을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식사	학교식당 (0) 외부식당 (0)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솔직하게 말하면 홈스테이 식사는 저랑 전혀 맞지 않았고, 맨날 똑같은 음식이라서 항상 밖에 나가서 사먹거나 학교안에있는 카페를 애용했습니다. 외부음식은 미리 서치하고 가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버스 배차간격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너무 넓어서 미리 버스 시간표를 알고 계시는게 좋아요. 반대로 지하철은 배차간격이 좁기에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음식	70만원	
쇼핑	30만원	
합계	1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캐나다 문화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중요, 팁문화와 택스가 따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에 염두 했으면 좋겠음.

미리 외부에서 많이 사먹는 것을 원한다면 간략하게 서치하고 가는게 그날그날 먹으러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음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이번여름방학때 정말 잘했다고 느낀 것이 이 단기어학연수를 신청한 것 이였다고 말할 만큼 정말 재미있고 유익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모르는 우리학교 다른 학과 친

구들이랑 여행을 함께하다 보니 해외여서 더욱 친해진 면도 있었고, 같이 여행다니기에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특히 여행에서 가장 걱정되는 숙박이랑 단체 생활을 해결해주면서 자유시간이 넓은 이 어학연수의 기회를 무조건 잡아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학교 프레젠테이션 결과물



캐필라노 현수교를 다녀와서



도는것밖에 없었던 놀이동산(플레이랜드)



벤쿠버 박물관에서 인상깊었던 네온사인



휘슬러 마운틴 중간 정상에서 단체사진



노스벤쿠버에서 인상깊었던 바다풍경